生藥材 製品過程과 取扱

①한방약(漢方藥)의 傳統的 原理는 한의사의 진맥에 의하여 두가지 이상의 生藥材를 複合하여 처방한 것을 한약(漢藥=韓藥)이라고 한다.

②우리나라 藥事法 제2조5항에는 '한약'이라함은 동물, 식물, 광물에서 채취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단절, 정제된 生藥을 한약이라고 한다.

農産物取扱과 의약品取扱區分은 二元化가 아니며 分明해야 한다

前者는 東洋傳來의 한방업계 慣行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며…

後者는 人爲的으로 표절하여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制約을 둔 行爲라고 볼수 있다.…

生藥을 直接生産하는 농민이나 生産地도관리와 판매유통을 전담하는 團體의 측면에서 볼때 前者와 같은 처방이전의 取扱行爲에는 마음便하게 일을 할 수 있으나 後者의 制約的 표절에는 중압感을 금할 길이 없다.

生藥材를 栽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확한 藥材를 잘 만들기 위하여 제값을 받기 위하여 원형대로 생것을 팔지 못하고 건조하고 정선하여 유통에 임한다. 건조시를 하기 위하여는 부분적 절단을 하여 건조시일을 단축시켜야 한다. (경비절감) 또한 이것을 잘 포장하거나, 볶음을 하거나, 짝으로하여 유통시켜야 한다.

이와같은 行爲는 분명 後者의 『원형대로 건조, 단절, 정제된 生藥을 한약이라고 한다』에 制約을 받기 때문에 항상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이와같은 현상을 두고 생산은 농민이 유통은 藥事에서 한다는 二元的시행 모순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多幸이도 本會는 生藥8-52호(88.10.17)付로 약사법 적용해석분을 全산하에 示達하여 生産者권익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오늘날 약사 단속상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은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 왕왕 무자격자가 위법행위등(진맥 또는 처방행위)을 저질러 위법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本會기본입부를 망각한 처사에 속하므로 회원으로서의 권익보호를 받을수는 없다.

따라서 本會산하 모든 會員은 序頭에서 말한… 生藥材를 2종이상 복합처방하기 이전의 取扱은 農産物로서의 取扱과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出荷商品價値向上에 最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포장된 生藥材를 유통시킬 경우 藥事法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生藥材를 절단, 건조후 포장하여 유통시키고저 할때 포장지에 의약적 효능효과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때는 의약품이 아닌 일반제품및 농산물로서 판매가능하다는 것을 약사법 제55조를 들어 다시한번 강조해 두고 싶다. 본회 산하 모든 사무소장과 공판장장께서는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는 舊文書(생약8-52호) 88.10.17일자 본회公文을 찾아 처음부터 끝까지 숙독해 주실것을 권하는 바이다.

본회 회원로서 본해석문내용을 숙지 하지 않고서는 일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本會는 長期的 안목에서 現在 책정되어 영달되고 있는 生藥造製施設보다 수배로 擴大된 生藥加工施設計劃이 成事되었을때 必然的으로 大單位主産品團地와 병행하여 協會直營이던 아니면 個人經營이던간에 反映이 될수 있다는 前提下에서 볼때는 附帶施行規則이 필수적임으로 이때에는 많은 主要品種의 出荷品에 對한 加工細則이 준비되어 關係當局의 承認이 어려울 경우 自體加工施行細則으로서 實施되지 않으면 안될 것임으로 미리 準備를 하고 있다.

連載 韓方순례 >32<

뼈에 의한 진단

〈續〉

1、골수결함은 신장의 약화에서 온다

뼈는 살과 피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관찰을 통한 진단보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경험방과 내장기나 체포와의 유기적인 연관성에서 뼈자체에 역점을 둔 건강진단법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인체의 외형을 말할 때 장대하다는 말과 비대하다는 구분을 기준하는 일상에서는 그 뜻을 크게 달리한다. 장대한 것은 모든지 골격의 장대를 말하며 이는 건장한 즉, 건강의 일면을 뜻하고 있다. 물론 골격의 중심부라는 위치적 관념에서 나온 말이긴 하겠으나 골수는 혈액과 더불어 중대한 생명의 요소로 간주한데서 오는 본질적인 뜻을 포함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추위나 습기 등이 뼈와 뼈마디에 끼치는 고통의 영향은 흔히 경험하지만 더위의 영향은 어떻게 미치는지 일반적으로 그 중상을 통한 구분이 좀 어렵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골위증(骨萎症)으로 신장의 영향이 오는 것이다.

즉 신장은 수성(水性)으로 이는 뼈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면 뼈속에 차있는 골수가 가득차지 못하다) 이는 뼈가 내장기인 신장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고통이 뼈속까지 스며든다는가 「뼈마디가 욱신거린다는 등의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이러한 말이 단순한 감각 기능의 표현을 뛰어넘는 동양의학의 유기적 인체관계에 깊은 근거를 두고 있는데 놀라며 극한의 경우(뼈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라고 말할 때 이는 추위에 대한 극한의 묘사이기에 앞서 골한증(骨寒症)의 직접적인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말임을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신장이 약하면 골수가 충만하지 못한 자는 골수에 스며드는 추위를 더 느끼며 이는 바로 유별나게 추위를 더 타는 자는 피하지방의 축적이 부족하다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골수의 충일등의 영양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여 골수의 축적에는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만일 골수의 충일이 없다면 뼈가 약화되는 것이다.

아마도 마라톤선수가 그들의 뛰는 전코스를 주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골수의 축적 여하에 달려있음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예로부터 어떤 사례의 면 골절환자도 많아졌고 신장병까지 격증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곡된 영양화을 맹신하여 고기나 계란, 우유등의 영양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여 골수의 축적에는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들의 뛰는 전코스를 주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골수의 축적 여하에 달려있음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예로부터 어떤 사례의 다음과 같은 건강관리의 요결을 경험법에 의해 엮거해 본다.

①신장은 뼈를 주관한다. 신장이 약하면 뼈속에 있는 골수가 충일되지 못한다.

신장이 열을 받으면 신음(腎陰)이 손상되고 소모되기 때문에 뼈가 마르고 이로 인해 골수가 줄어들어 척주의 회전운동이 거북해지든가, 다리에 마비가 와서 서 있기가 곤란해지는 증상인 것이다.

이는 신장과 뼈와 골수가 유기적으로 연관하여 표리의 관계에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건강관리의 요결을 경험법에 의해 엮거해 본다.

①신장은 뼈를 주관한다. 신장이 약하면 뼈속에 있는 골수가 충일되지 못한다.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景太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產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967-4984
☎965-9551

(祝)

展發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 경기도지부

지부장 김성배
도공판장 최병목
포천군 사무소장 이인기
양평군 〃 송만용
동두천시 〃 황정근 (공판장겸직)
가평군 〃 이인태
용인군 〃 최윤식 (공판장겸직)
연천군 〃 박헌주
구리시 〃 이성덕
평택군 〃 정기효 (공판장겸직)
평택시 〃 권현철 (공판장겸직)
의정부시 〃 허남운
성남시 〃 구연식 (공판장겸직)
인천남구 〃 윤선영
양평군 공판장장 신현석
이천군 〃 오영주
연천군 〃 박종득
가평군 〃 한인옥

1992년 6월 20일